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보여지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이 자 경

호원대학교 패션뷰티학부

I. 서 론

본 연구는 영화의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이 갖는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영화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갖는 의미와 역할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기반을 둔 연출자의 의도가 영화 속에서 어떠한 신체 이미지로 구현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시기의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영화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영화가 다시 동 시기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영화는 윌리엄 와일더(William Wilder) 감독의 1953년작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이다. 이 영화는 1950년대 영화 의상 디자이너의 최고봉인 에디스 헤드(Edith Head)가 의상을 맡고 있는데, 그녀는 이 영화를 포함하여 1948년 아카데미 의상상이 창설된 이래 8번이나 수상하는 진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주연인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은 이 영화로 스타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션의 경향을 만들어내는 위치에까지 서게 된다.

연구범위는 <로마의 휴일>에 나타난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의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요소들이 영화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 그리고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의 휴일> 제작 당시의 패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영화에 나타난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을 통해 형성된 가공의 이미지가 다시 동시대의 패션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적 관점에서 영화의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과 논문, 학술지, 복식자료, 영화잡지 등을 분석하였고, 동시에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예술사 및 미학 관련 서적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사진자료 및 정보자료와 파라 마운트 필름의 1953년작 원작영화 DVD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논문 중에서는 영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정치영상 이미지를 캡처하여 게재하였다.

3. 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본 연구는 영화라고 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을 중심으로 한 분장과 의상이 하나의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서 영화 속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분장과 의상이 해당 영화가 탄생한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나아가 하나의 영화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이미지와 캐릭터가 역으로 동 시대의 패션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1953년작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정한 분석이므로 그 결과를 다른 모든 영화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작품은 흑백영화이기에 색상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그 당시의 색채경향에 대해서는 잡지나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나의 패션이나 유행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1950년대에 비해 현시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의 분장과 의상은 당시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론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은 1950년대 시대적 특성인 관능의 미에 반대되는 기품있고 청

순한 여성미를 만들었다. 1950년대 영화의상 디자이너의 최고봉인 에디스 헤드(Edith Head)의 작품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이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 (1953)과 <사브리나> (1954) 였는데, 오드리 헵번은 이 두 편의 영화로 인해 1950년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오드리 헵번은 이른바 ‘헵번 룩’을 만들어냈고, 일명 ‘헵번 컷(Hepburn Cut)’이라는 쇼트 커트 헤어의 새로운 풍조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그녀를 새로운 스타일을 그녀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냄과 동시에 전 세계 여성들 사이에 헵번 스타일의 붐을 일으켰다. 그리고 헵번은 <로마의 휴일>를 통해 스포티한 캐주얼복과 드레시한 파티복 중심의 영화의상으로 관객에게 우아한 이미지의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마의 휴일>의 의상은 헤드와 지방시의 합작이었는데,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처럼 전후 파리의 오프 꾸뛰르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스타였다. 디올 이후 많은 라인이 나타났지만 지방시의 선과 커트 기술은 간소한 아름다움으로 전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헵번이 신었던 페라가모의 플랫폼즈도 유행을 타게 되었다.

1950년대에 유행했던 메이크업의 경향은 조각 같은 아름다움이 다시 대두 되어 얼굴을 인공적으로 가꾸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얼굴은 1920년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도전이나 자립의 표현이 아니라 순종의 표현이었다. 두껍게 바른 화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눈썹 연필과 파우더는 냉담하면서도 자제하는 듯한 사슴 같은 눈매의 여성스러움으로 1950년대의 새로운 여성상을 탄생시켰다.

여성들은 이 시기를 통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 사용하던 화장품을 다 사용한 다음에야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였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구비하여 놓고 사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후 새로운 과학의 진보로 다방면의 미용품이 만들어졌고 세련된 광고와 시장 전략으로 상품은 대단한 열기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 이 당시 여성들이 이전 시대의 여성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의상과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이 조화가 이루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로마의 휴일>와 같은 영화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토탈 코디네이션이 한 명의 여성을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공감과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예술인 영화에서 보여지는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시대적,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새로운 영향을 만들어내는가에 관하여 윌리엄 와일더 감독의 1953년 영화 <로

〈 영화장면에 따른 프린세스 앤의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토탈이미지 분석표 〉

영화장면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토탈이미지
공식석상에 서의 프린세스 앤	· 흰색의 실크 브로케이드 가운 (silk brocade gown) · 오프숄더(off shoulder)로 ,개더있는 로우웨이스트의 풍성한 벨실루엣 (bell silhouette)의 롱드레스. · 에샤프(echarpe), 훈장 브로치 (brooch) 작은 왕관과 심플한 이어링, 팔꿈치 까지 오는 장갑과 목걸이	-눈썹은 진하고 아이라인의 눈꼬리를 두껍게 하면서 꼬리를 약간 올림 -눈썹은 두껍고 둥글게, 피부는 하얗게 , 입술은 붉게, 볼터치는 핑크색 계통으로 표현	어마를 다 드러내도록 깔끔하게 빗어 올려 올백으로 넘겨서 위로 뿜은 머리를 사용해 올린 우아하고 감쪽한 업스타일	귀엽고 상큼한 옹모에 화이트 드레스로 고급, 화려,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엘레강스 이미지
궁을 몰래 빠져나온 프린세스 앤	· 롱슬리브의 흰면 블라우스. · 헬라인(Hemline)의 폭이 넓은 플레어 스커트 · 넓은 벨트(가는 허리 강조), · 발목에 스트링(string)이 있는 발레슈즈 모양의 낮은 샌들(sandal)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자연스런 청순미감 조 메이크업	옆 가르마로 양쪽에 핀을 꽂아 단정하게 만든 아래 쪽이 웨이브진 롱헤어	수수한 이미지 활동적이고 편해보이는 캐주얼이미지
광장에서 의 프린세스 앤	· 스포츠 카라의 화이트 셔츠 · 스트라이프 무늬의 실크 스카프 · 세련된 분위기의 캐주얼 의상을 연출	피부는 하얀 핑크조로, 입술은 붉고 풍만하여 또렷하게 표현	짧은 일자 앞머리에 귀양을 바깥쪽을 해서 귀엽고 발랄하며 감쪽한 쇼트커트	세련되고 도회적이며, 쉬크,모던한 이미지에 가는허리를 강조하는 페미닌 이미지
기자회견장의 프린세스 앤	· 레이온 벨벳 소재의 솔 칼라가 달린 브런치 코트 (brunch coat), · 고급스런 엠보스드 벨벳(embossed velvet)소재로 만든 두꺼운 패드를 넣은 모자와 진주 목걸이	차분하고 여성스러우며 위엄있는 지적인 메이크업	숏커트의 짧은헤어스타일 위에 의상과 같은 재질의 밴드형 모자를 써서 기품 있는 이미지	고급스럽고우아하며 성숙된 이미지

마의 휴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로마의 휴일〉라는 캐릭터와 오드리 헵번이라는 스타에게서 보여지듯이 영화 속의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은 영화라는 범주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오고 있다. 비록 이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한 분석이었지만 어느 한 시대의 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이 영화라는 매체와 그 안에서 형성된 가공의 이미지를 통해 동시대의 사람들과 유기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해가고 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좀 더 많은 영화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분석이 심화되고 확대되어감으로써 영화의상과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이 갖는 영향력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할 기대한다. 본 연구가 이 같은, 영화를 매체로 한 토탈 코디네이션 분석의 작은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연구자로서는 그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안니골드만 〈영화와 현대사회〉 민음사 1998
2. 루이스 자네티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9
3. 류지원 외 2인 〈뷰티코디네이션〉 고문사 2000
4. 황선진 외2인 〈복식문화〉 교문사 2001

5. 박지향 <영화의상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5
6. 오인영 <사회문화적 배경이 20세기 전반기 서구미용문화에 미친 영향>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7. 김성곤 <영화예술의 미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8. 김연숙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Audrey Hepburn스타일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9.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경향>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10.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11. 임수연 <에디스 헤드(Edith Head)의 영화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아카데미 영화제 의상 디자인 수상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Baker, Patricia, <Fashion of Decade 1950' s>,London: Batsford,1995
13. Corson, Richard, <Stage Makeup> New Jersey: Prentice Hall,1990
14. Regine and Peter W <Fashion in Film> Engelweier